



|              |  |
|--------------|--|
| 제목           | The Legacy of Mediaeval Persian Sufism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KNP(=Khaniqahi Nimatullahi Publications) |
| 발행일          | 1992. 12. 1.                             |
| 저자           | Leonard Lewisohn(편집자)                    |
| 출판국가         | 영국                                       |
| 페이지수         | 434                                      |
| ISBN 또는 ISSN | 978-0933546462                           |

**내용 요약**

이 책을 쓴 목적은 페르시아 수피즘의 3세기에 걸친 문학적·예술적·문화적 르네상스의 근간을 살펴보기 위함인데, 특히 '수피(Sufi)'라 불리는 중세 중기 페르시아 문명의 종교적 지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특함이 동반하는 일종의 확장 작업에 해당한다.

수피의 관점에서 보면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판단이나 표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만물은 신의 존재를 통해 존재하고 신의 존재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때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아무 것도 아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일상 언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존재를 루미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며, 존재의 환상일 뿐이다. /신인 당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유일한 존재이다. /수피들은 존재의 영역과 신의 존재 영역을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빛 이니"(XXIV: 35)라는 코란의 구절을 두고 개방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은 하느님을 진흙과 땅을 위한 모든 빛의 근원으로 해석하지만 수피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존재, 하늘과 땅의 실재로 받아들인다.